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신당 바람'

입지자들 더민주 탈당
대부분 안신당행 선호
야권 신당 통합도 변수

안철수 신당과 호남신당이 동구청장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안 의원이 지난달 13일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데 이어, 천정배·박준영·박주선 등 호남발 신당도 잇따라 창당되면서 재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4·13 재선거를 97일 앞두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후보가 안 신당에 합류하느냐가 이번 재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구의회 이선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 이어,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도 지난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이들은 각각 박주선 신당과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일부 출마예정자들도 안철수 신당행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진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등에 업고 불었던 '안풍'(안철수 바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선거의 최대 관심은 안철수 신당에 어느 후보가 합류할 지 여부다. 이번 재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당 선택지를 놓고 겉으론 고민 중이라곤 하지만 속으론 안철수 신당행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과 호남신당세력간 통합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당세력간 통합이 이뤄진다면 신당세력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출마예정자의 자질 문제도 이번 재선거의 최대 관심 중 하나다. 유태명·노희용 전임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낙마, 구정공백사태로 이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후보자 자질 검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재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과의 러닝메이트 전략도 재선거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안철수 신당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출마예정자들간 눈치작전도 치열하다"라며 "다음달 초·중순이면 어느 정도 선거 판세를 가름할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1호선 하루 5만명 수송시대

2004년 개통 11년만에
송정역 이용객 41% ↑

광주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이 일 평균 5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첫 개통 이후 11년 만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1831만6553명으로 일 평균 5만182명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는 1805만2898명이 이용, 일 평균 4만9460명이었으며 전년대비 1.5%증가했다.

1호선 1구간(소태~상무)이 개통한 2004년 일 평균 이용객은 3만573명이었다. 이후 2구간(상무~평동역)이 완전 개통한 2008년에는 일 평균 4만3142명으로 4만명 수송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는 KTX 호남선 개통(4월)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9월)에 힘입어 5만명 수송시대에 진입했다.

KTX 호남선의 중심역인 광주 송정역 이용객은 일 평균 3624명으로 전년 2579명 보다 무려 40.5% 급등했다. 문화전당역도 3123명으로 전년 2885명과 비교해 8.3%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이용객이 많은 역으로 금남로4가역이 5173명, 남광주역(4196명), 상무역(3960명) 순이다.

한편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무료 이용객은 일 평균 1만671명으로 모두 586만5936명에 달했다.

정선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만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도시철도의 수송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마케팅을 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행정용어 20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전남도는 누리집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고시공고, 공문서, 사업명 등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어려운 행정용어 20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원공(水源工) 은 농업용수 공급시설, 수갑(水閘)은 수문, 수로교(水路橋)는 물길다리,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은 물 사정 좋은 논, 양수(揚水)는 물푸기, 제체(堤體)는 둑 몸체, 곡과(曲果)는 굽은 과일, 공동과(空洞果)는 속 빈 과일, 과경(果梗)은 열매꼭지, 엽채류는 잎채소류로 각각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유료작물(油料作物) 역시 기름작물, 포복경은 땅위를 기면서 자라나는 줄기, 조류(藻類)는 이끼류, 부재(部材)는 재료, 법면(法面)은 경사지, 현장하다는 기리다, 스토리 랩(story lab)은 이야기 산업, 만수위(滿水位)는 가득찬 물 높이, 슬러지(sludge)는 찌꺼기 또는 쓰레기, 베이크아웃(bake-out)은 구워서 내보내다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힘겨운 수술 이겨내 고마워요"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북구 운암동 굿모닝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노석훈(39) 소방장을 위문, 격려했다. 노 소방장은 지난해 8월 벌집 제거 민원을 받고 전신주에 올랐다가 감전돼 왼손을 잃었다. 윤 시장은 "힘겨운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처럼 살아 고맙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복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족한 정부 지원 탓에 의수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던 노 소방장은 시민과 동료들의 관심과 성금 등으로 어렵게 의수를 구입했다. 하지만 7년마다 교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광주시는 7일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을 확정, 공표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는 115만4884명,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15만4261명이다.

총수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영주체류 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 영주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사람만 해당되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로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만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순 주자묘·정율성 생가터 10억 들여 연내 정비

전남도, 외국과 인연 관광자원 54곳 통합 관리

전남지역 내 외국과 인연이 있는 자원은 모두 54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들 자원들의 가치를 높이고, 외국 관광객 및 자본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정비하고, 통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 인물과 연관된 자원은 화순 주자묘 등 모두 54곳이며, 일본 관련 자원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9곳, 네덜란드 3곳 등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영국·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이 각각 1곳씩이다.

전남도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54곳 중 목포근대역사관, 여수 거문도 산사터, 영산포 근대문화거리, 무안 최부묘, 신안 보물선 발굴지 등 41곳은 이미 정비가 완료됐다. 여수 진남관, 순천왜성, 강진 하멜기념관, 해남 황호별묘, 영광 불교최초도래지 등 7곳은 정비가 진행중이며, 화순 주자묘 등 6곳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남도는 이들 6개소는 2018년까지 58억7000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화순 주자묘와 정율성 생가터에 대해서는 9억7000만원을 들여 석축·계단·담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을, 강진 하멜촌에는 6억원을 투입해 주변 7.5km 트레일 조성, 고흥 절이도에는 3억원으로 해전 승전 기념탐 및 공원 조성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진도군민들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사체를 묻어준 진도 왜덕산은 2017년까지 10억원으로 역사 고증, 묘역 추가 발굴, 토지 매입 및 정비 등에 나서고, 여수시 묘도의 도독마을은 2018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조·명 연합수군 주둔지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설 정비 외에도 역사 고증을 통해 각 자원별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코스화하고 별도의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윤현석기자chadol@

박대통령 14~26일 각 부처 업무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추진된 주요 정책들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 주제로 나눠 관계 부처들(17부·1처·4위원회)이 3~7개씩 함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